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소식지

교육목적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 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교육목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통해 길러주고자 하는 성취능력을 교육목표로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의사에게 필수적인 의학 지식과 술기,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에 바탕을 둔 기본적인 진료 능력을 확립한다.
- 둘째,** 건전한 윤리관, 사회적 책무성, 여성 리더십과 능동적인 자기개발능력을 함께 갖춘 의학 전문직업성을 확립한다.
- 셋째,** 비판적 탐구 자세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함양한다.
- 넷째,** 이웃과 국가, 나아가 인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함양한다.



02 대학소식

- 2017년 행림제를 다시 돌아보며
- 해외 저명인사 의과대학 잇단 방문

03 학생소식

- 동아리 탐방: 피아노 동아리 에뛰드 밴드 동아리 인프리트레드
- 김서연, 혈관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 이현진, 이혜주, 2017년도 대한심장학회 제 61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 발표
- 김하림, 한국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04 기획기사

- 이화의대, 우즈베키스탄에 의료 봉사단 파견
- 내과학 강덕희 교수 봉사 수기
-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 이화의대지, 2017년 ESC 등재

06 교수소식

- 명예교수 위촉 소식
- 교수 수상 및 업적

07 동창소식

- 이대의사회동창회,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08 행사알림

- 이화해의의료봉사 (1)
- 이화해의의료봉사 (2)
-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 2017년 송년회 및 학술심포지엄

대학소식

2017년 행림제를 다시 돌아보며



지난 10월 20일 금요일, 가을을 맞이하여 의대 의학전문대학원 행림제가 열렸다. 이날 바쁘신 와중에도 행림제에 참석해주신 이지희 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축하말씀으로 개막식을 올렸다. 동아리들의 공연 외에도, 여러 학생들의 개인기를 뽐내는 장기자랑도 진행되었다. 찬조공연으로 시작된 2부에서는 학생 및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고, 이어 행림제 하이라이트인 애장품 경매행사가 진행되었다. 경매행사로 모인 금액은 전액 여성암 센터로 기부된다고 한다. 좋은 일에 쓰이는 만큼 기부해주신 교수님들과 함께 참여한 학생 모두 보람된 행사였다. 매일 공부에 지쳐있는 학생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리고 자신의 장기를 뽐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의전원 2학년 고훈진, 박조은 기자〉

해외 저명인사 의과대학 잇단 방문

프랑스 국회의원이자 영상의학전문인인 조아킴 손 포르제(Joakim Son-Forget) 의원 및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노인학 대학의 핀카스 코헨(Pinchas Cohen) 학장, 독일 쾰른대학교 대학병원 이선희 부원장이 잇달아 의과대학을 방문했다. 손포르제 의원은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17)' 참가를 위해 방한기간 중에 10월 26일(목)에 본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의과대학 교원 및 대학원생을 위한 'Radiology and his research on Gadolinium : Image of Neurodegenerative disease'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는 부인 손정수 동문(식품영양학·07졸)도 동행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10월 30일(월) 본교를 방문한 노화(Aging) 분야의 권위자인 핀카스 코헨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후과정을, 펜실베이니아 대학 및



UCLA Mattel Children's Hospital에서 강의 및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유수의 과학저널에 300편이 넘는 노화·당뇨·알츠하이머·암 등 관련 논문을 발표했으며, 다수의 수상 경력 및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코헨 교수는 심봉석 이화의료원장 및 이지희 의과대학장과 교류 협력에 관해 차례로 환담을 나눈 후, 'Mitochondrial-Derived Peptides in Health and Disease'를 주제로 세미나의 연자로 나섰다. 11월 15일(수)에는 독일 쾰른대학교 대학병원 정신과 이선희 부원장(철학·80졸)이 방문하여 ESAC(Ewha Social Active Communication) 특강의 연자로 나섰다. '철학도에서 정신과

의사로 - 독일에서의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에서 이선희 부원장의 독특한 경력과 경험은 이날 모인 300여명 청중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자랑스러운 이대 학보인상(2014), 이화여고 이화를 빛낸상(학술부문, 2016)을 수상하기도 한 그녀는 이날 모인 청중들에게 두려워말고 치열하게 도전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은 매년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청, 학생들을 위한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저명인사의 자발적인 방문 및 특강 문이 이어지고 있어, 의과대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의학교육기관임을 입증하고 있다.

해가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정기 공연에 교수님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동아리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자극을 주신다. 또한 동아리방에 있는 피아노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동아리방 예약과정을 통해 자유로운 개인 연습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가을에 동아리원이 모두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로서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학기 중에 느끼기 힘든 여유로움과 잠시 쉬어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피아노라는 취미생활을 통해 힘든 의과대학 생활 중에 긍정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고, 1년에 피아노곡 한국곡을 완성시켜 연주회를 가짐으로서 생기는 만족감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의전원 2학년 박조은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밴드 동아리 인프라레드



의과대학 내 밴드 동아리 '인프라레드'(지도교수: 신경외과학 김명현 교수)는 8월 5일 홍대 '프리버드'에서 여름 정기 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인프라레드'의 일 년간의 동아리 활동 중 가장 큰 행사로, 부원들은 방학 동안 연습에 힘쓰며 공연을 준비했다. 홍대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공연은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본과 2학년 학생들의 혁오 'Tomboy'로 시작되었고, 예과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예과 1학년의 4팀은 각각 윤하의 '비밀번호 486', 아이유의 '너의 의미'등의 곡을 연주했고, 2학년 학생들은 널 '기억을 걷는 시간', 이찬섭 'At the end' 등을 선보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서울대 의대 밴드 MESIK의 찬조공연이 이어졌다.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합동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으며, 마지막으로 본과 1학년 학생들이 CNBLUE '외톨이야', DNCE 'cake by the ocean' 등을 선보이며 공연은 막을 내렸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더욱 빛났던 이번 여름 정기 공연은 학업에 지친 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뽐내고 각자의 취미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 공연 경험을 통해 취미를 즐길 뿐 아니라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인프라레드'는 다가오는 겨울에 연합공연을 계획 중이다.

〈의예과 1학년 방윤지 기자〉

학생수상 기사문

의학전문대학원 김서연, 2017년도 한국혈관학회 우수포스터상 수상



의학전문대학원 M.D., Ph.D 과정 김서연 학생(지도교수 박영미)은 지난 8월 23일~ 25일간 열린 2017 VSMO (Vascular science and medicine organization)에서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VSMO는 한국혈관학회가 주최하는 학회로 매년 유수의 과학자들이 모여 혈관 생물학의 기초 및 임상 연구에 관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초, 임상 중개연구, 융합신기술 개발, 신약 및 진단을 망라한 종합적인 혈관연구분야의 최신연구 동향을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혈관학회와 공동 주관하여 더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토론하였다. 김서연 학생은 'Effects of vimentin phosphorylation in macrophage foam cell form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수상하였다. 해당 연구는 전세계 사망원인 1위인 cardiovascular disease의 중요 병리생태적 기전인 죽상동맥경화증(Atherosclerosis)의 초기단계에 관한 연구로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거품세포(foam cell)의 형성에 있어 세포내 골격의 일종인 vimentin intermediate filament가 관여한다는 것을 최초로 규명한 연구이다. 김서연 학생은 "연구의 시작부터 끝까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박영미 교수님 및 실험실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실험을 도와 주신 생명과학과 오구택 교수님, 정세진 박사님, 김시내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 이현진, 이해주, 2017년도 대한심장학회 제 61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 발표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 이현진, 이해주 학생은 순환기내과 박준범 교수 지도 하에 각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12일 ~ 10월 14일, 3일간 진행된 '2017년도 대한심장학회 제 61차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 연구로 선정되어 발표하였다. 이현진 학생은 투석을 받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심전도를 분석하여 투석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심장 돌연사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연관성을 밝혀내어 '젊은 연구자 상'의 후보로 선발되었다. 이 연구는 총 692명의 투석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로 심전도에서 특정 지표가 짧아지는 것이 심장돌연사와 연관됨을 밝혀내어, 앞으로 투석환자들의 예후를 증진시킬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해주 학생의 연구는 비허혈성 심근병증, 곧 진행성 심부전으로 발전되어 치명적인 부정맥, 실신 등을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심장근육병에 대한 연구로, 이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는 많이 밝혀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는 307명의 비허혈성심근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전도와 심장 MRI를 분석하여 생명에 치명적인 부정맥을 예측할 수 있는 심전도 지표와 이의 매커니즘을 밝혀내어 영어 구연 발표를 했다. 이현진, 이해주 학생은 "연구를 위해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학생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다"면서, "앞으로의 의사 생활에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싶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의학전문대학원 김하림, 한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제3기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김하림 학생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협회(KAMC)가 수여하는 해외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올해로 3기를 맞는 KAMC 해외연수 장학생 프로그램은 국내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해외 의료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의료계의 글로벌 의학인재를 양성하고자 장학생을 선정하여 해외연수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국의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총 10명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1월 17일 KAMC 연례 학술대회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각 교의 학장 및 보좌자 그리고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을 축하하였다. 선발된 김하림 학생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약 한달간 홍콩 중문대 영상의학과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하림 학생은 AMSA(Asian Medical Students Association)의 일원으로 3년간 활동하면서 싱가포르, 대만, 호주 등 세 나라의 컨퍼런스와 각 나라의 병원을 탐방할 기회를 가지면서, 각국의 의료 상황과 환경적 차이가 의료 시스템에 가져오는 차이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이번 홍콩 중문대에서의 실습을 통해 다국적 환자가 많은 홍콩에서 병원의 감염 관리, 환자 관리 등의 시스템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술 발달과 영상의학의 기능 및 진단적 기법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학생소식

동아리 탐방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피아노 동아리 에뛰드



에뛰드(지도교수: 미생물학 임재향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피아노 동아리로, 2006년에 창단되어 2017년 현재 15기까지 활동하고 있다. 에뛰드는 4월 신입생 환영회 이후, 5월에 정기 모임을 한번 가지고, 7월 여름방학 때 정기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 전 리허설을 시행하는 등 선배와 후배가 함께 연주회를 준비

기획기사



이화의대, 우즈베키스탄에 의료봉사단 파견

의과대학은 8월 3일(목) 의학관 A동에서 우즈베키스탄 해외 의료봉사단을 위한 '2017 하계 이화해외의료봉사단(EMC, Ewha Medical Care)'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이지희 의과대학장, 심봉석 의료원장, 이남희 의대 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먼 길을 떠나는 봉사단원을 격려했다. 봉사단은 8월 6일(일)부터 14일(월)까지 8박 9일간 우즈베키스탄 안디잔 지역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안디잔 의과대학에서 강의와 학생교류를 실시한다. 봉사단은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진과 의대·의전원·약대 재학생뿐 아니라 이화의료원 및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을 포함해 총 30여명 규모이다. 이화해외의료봉사단은 1989년 네팔을 시작으로 캄보디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왔으며, 2007년 이후에는 매년 학생들의 방학 기간을 활용해 의료봉사 활동을 실행하고 이화의료원과 동창회의 지원을 받는 등 활동 영역과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이 우리 모두의 특별한 시간으로 되었던 놀라운 경험

내과학 강 덕 희 교수

지금 생각해보면 Ewha Medical Care 2017팀이 계획된 일정을 모두 건강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과 우즈벡의 안디잔 지역 주민, 의료진, 의과대학 교수, 학생들과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일은 모두 기적들로 느껴진다. 우즈벡 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팀의 건강과 우리를 통한 하나님 사역의 성취였는데 두가지 모두가 이루어진 것도 감사한 일이다. 무엇보다 팀원 하나하나가 자신의 일을 마음에서 넘쳐나는 기쁨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배려하고 있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고 또 마음으로 느껴져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하였다. 매 순간이 특별하였지만 그 중 몇가지 일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으로 순식간에 전파되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첫번째 이야기 중년의 여성은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손을 오른쪽 가슴에 대면서 "앗살롭 알라이쿰"이라고 인사를 한다. 고혈압, 당뇨병으로 투병 중인 환자의 이름은 Hofiza. 그녀는 이곳에 오기위해 새벽 5시에 집을 나왔다. 작년에 어머니가 EMC 진료시 받은 약을 먹고 두통이 없어져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진찰을 하고 환자가 가지고 온 이전 검사 기록을 바탕으로 현상태에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고, 추가 검사 후 필요하면 약을 조정하기로 했다. 진료 후에도 환자가 내게 계속 뭐라고 하어서 추가로 불편한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우즈벡→영어 통역을 도와주었던 Ms. Shahnoza에 의하면 환자가 오늘의 진료가 "special moment in her life"라고 표현했으며 본인의 병에 관해서 이런 식의 설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축축하게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 하는 환자에게 "This is more than special to me." 라고 이야기 했다. 일상의 진료에서 감사함과 특별함을 느끼는 Hofiza를 보면서 그날 진료시간 내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하루가 특별한 것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하였다.

두번째 이야기 봉사일정 중 8월 12일은 팀에서 회계를 맡아 봉사기간 내내 수고한 해령이의 생일이 있었다. 아침에 버스에서 생일축하 노래를 같이 불러주고, 점심에는 팀원 모두가 준비한 메오와 함께 맛있는 우즈벡 케익을 먹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특별한 생일 축하를 감사해하는 해령이는 아마 몰랐을 듯하다. 해령이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지만 생일을 축하해주는 우리 모두에게 더 특별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노래를 마치고 내 맞은편에 앉아있던 지수가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에요...." 지수는 무엇에 감동했을까? 축하를 받는 사람과 누군가를 열심히 축복해주고 싶었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해지던 그 순간에 감동한 것이 아닐까?

세 번째 이야기 귀국을 위해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이번 EMC 팀에서 가장 막내였던 유겸이가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 EMC 참여가 본인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말하면서 EMC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유겸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유겸이가 우리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의 하나라고 말해주었는데 유겸이에게 한 말은 입에 발린 칭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한 말이라는 것을 유겸이는 알았을까? 짐을 꾸리고, 포장하고, 나르는 일, 환자 접수를 돕고 약국, 치과에서 한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든든한 막내 동생으로 팀의 분위기를 Up시키던 '애어른' 유겸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유겸이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고 우즈벡 안디잔 병원을 찾았던 분들이나 식당, 숙소에서 만났던 사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기금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2018년 완공되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의과대학 새 캠퍼스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는 "기독교적 진선미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보건의료분야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 양성"이라는 의과대학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최고 수준의 의학 교육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세계 의학교육을 선도하게 될 최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은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 신설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제 22~23대 학장을 역임한 김경호 전 학장은 2014년 8월 취임 이후 의과대학 발전을 위한 모금에 박차를 가해 2017년 7월 말까지 19억 9천 여만원의 의과대학 발전기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을 신설하고 제 1호 기부자로 박혜숙 교무부학과장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의과대학 새 캠퍼스에는 강의 녹화가 가능한 최첨단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쌍방향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OSCE/CPX룸, 문제타방 학습 지원을 위한 소규모 세미나실,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춘 개별 태블릿 기반 실습 및 평가 지원 설비, 화상 교육 및 해외 교류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실, 최첨단의 의학도서관 및 최신식 의과대학

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WE is better than me"를 특별한 방법으로 경험하였다. 하루의 시작을 같이하고 일정을 마친 늦은 밤 내일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던 친구들, 함께 밥을 먹고, 땀을 흘리면서 (물론 우리가 흘린 땀의 양은 달랐다. 최신우선생님, 에어컨이 없는 진료실에서 머칠을 보내게 한 것 미안합니다...), 또 같이 기도드리면서 EMC의 하루하루를 보냈던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EMC의 일정을 위해 기도해주신 학장님, 의료원장 및 병원장님과 의료선교회 선생님들, 동창회장님, 씨젠의료재단과 약품 등을 지원해주신 회사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리며... 라흐맛!



구축기금전달자: 오른쪽부터 김희선, 박주원, 공경애, 박은미, 이지희, 박혜숙, 최지하, 임재향, 최윤희(생리학) 교수

전용 기숙사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이 갖추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과대학은 세계 여성의학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 의과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여성 인재 양성과 21세기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명문 의과대학으로의 도약이라는 의과대학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의과대학 새 캠퍼스 교육인프라 기금' 및 '의과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졸업생, 교수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의과대학 교육인프라 구축 기금 약정현황 — 2017년 11월 29일 기준	회원명	약정금액(실제)	회원명	약정금액(실제)	회원명	약정금액(실제)
	공경애	10,000,000	박주원	10,000,000	이화영	10,000,000
	곽현정	10,000,000	박혜숙	10,000,000	임재향	10,000,000
	김경호	10,000,000	양훈진	10,000,000	최윤희	10,000,000
	김희선	10,000,000	우소연	10,000,000	최지하	10,000,000
	박은미	20,000,000	이지희	20,000,000		

이화의대지, 2017년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등재



이화의대지(The Ewha Medical Journal)가 2017년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에 등재되었습니다.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이하 ESCI) 는 2015년 11월 출시된 톰슨 로이터의 새로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로, 떠오르는 분야의 학술지를 SCI에 등재되기 전에 Web of Science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즉 SCI 또는 SCIE 등의 등재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1) 높은 질 (high-quality)의 (2) 지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전문가심사를 거친 학술지 (peer-reviewed publications of regional importance)로 (3) 떠오르는 과학 분야 (emerging scientific fields)를 다루는 학술지를 선별하여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화의대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행하는 종합 의학 학술지로 1978년 창간되었으며, 2011년 전면적인 개편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연간 4회 발행하며, KoreaMed, KoMCI, KoreaMed Synapse, WPRIM, DOI/CrossRef, EMBASE와 Google Scholar 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7년 6월 온라인 투고시스템 (<http://www.emj.or.kr>)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7월호 (40권 3호)부터는 전면적으로 온라인 출간 (<https://emj.ewhamed.ac.kr/>)을 시행하여 임상학과 기초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인들간의 원활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수소식



명예교수 위촉 소식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임용, 진단검사의학 홍기숙 교수



▲ (왼쪽)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장 이지희, (오른쪽) 명예교수 홍기숙

이화대학에서 대학 공부 10년, 이대 병원 수련기간 6년, 이대 교수 30년 6개월을 지냈다. 이대동대문병원, 이대목동병원, 서남병원을 경험하였다. 의사로서 교수로서 바쁜 생활을 하였고 대과 없이 2017년8월31로 교수정년퇴임을 하였다. 2017년 9월 1일로 명예교수를 발령받았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 동안 나를 위해 도와주고 기도해주 가족들, 스승님들, 동료교수들, 선배 그리고 후배들께 감사한다. 나를 세우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준 성경말씀으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열여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믿음 소망 사랑 중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누가 복음 11:9, 잠언16:9, 고린도전서 13:13). 이제부터는 좀더 여유 있게 주위를 둘러보며 그 동안 받기만 했던 은혜들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이화대학의 발전과 의과대학 및 이화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한다.

예방의학 박혜숙 교수,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유전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예방학과 박혜숙 교수가 11월 7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1차년도 유전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6년 질병관리본부로 이관, 통합된 후 현재 제 7기 2차년도 (2017) 조사 중에 있으며 매년 200여개 지역 약 4,000 가구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국가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산출하여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박혜숙 교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7기 1차년도 조사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동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박혜숙 교수는 만성질환에 대한 생애주기역학, 손상감시체계, 질병부담, 예방접종정책 등의 분야에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역학적 근거 창출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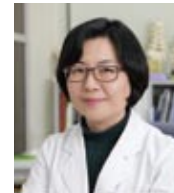
교수 수상 및 업적

소아과학 박은애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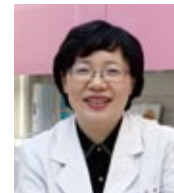
－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 기여 공로 인정
소아청소년과 박은애 교수가 지난 2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개최된 개원 7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박은애 교수는 2011년부터 각종 인증 기준안의 개발과 인증기관에 대한 심사 평가 위원, 자문조사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2016년부터 인증기준 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의료기관 인증제도 활성화와 인증원 업무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박은애 교수는 이대목동병원의 국내외 의료기관 인증에 기여하고 QPS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5년 간 자체중 출생아 지원 사업인 '이화 도담도담지원센터'의 운영 등 국내 신생아 치료 분야를 선도해 왔다.

재활의학 한수정 교수팀 '대한재활의학회지 우수논문상' 수상



재활학과 한수정 교수팀이 지난 10월 20~21일 열린 '2017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재활의학회지(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수정 교수팀의 논문은 '경두개 직류자극에 의한 작업 기억과 명명 기능 호전' 주제의 연구논문으로, 최근 5년간 피인용 횟수가 많은 피인용 상위 원저 논문에 해당하여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수정 교수는 이 연구에서 경두개 직류자극을 좌측 전전두피질에 시행하였을 때 작업 기억과 명명 기능이 유의하게 호전되고, 우측 전전두피질에 시행하였을 때 시공간적 집중능력에 있어 유의한 호전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특정 자극부위에 경두개 직류자극을 시행함에 따라 특이적 기능의 호전이 가능함을 보여주어 경두개 직류자극을 이용한 신경조절과 신경재활 분야의 효과적인 적용의 가능성을 높였다. 한수정 교수는 2010년 하버드 의대 스폴딩 재활병원의 신경조절연구소에서 연수한 바 있으며, 이후 경두개 직류자극 등의 신경조절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뇌신경재활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활발한 임상연구와 각종 논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산부인과학 김영주 교수, 세계조산학회 오세아니아-아시아 지부 초대 회장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조산학회 (Preterm Birth International Collaborative, PREBIC) 오세아니아-아시아 지부 학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임기는 10월 26일부터 1년. 김영주 교수는 2013년부터 세계조산학회 한국 대표로 활동 중이며, 올해 5월에는 동아시아 대표로 미국 텍사스(Texas)에서 열린 세계조산학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영주 교수는 이번 초대 회장 선임으로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 조산 전문가들과 조산 관련 연구 공유, 협력을 통해 예방 및 치료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조산은 일반적인 임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신 20주 이후부터 36주 이전까지 분만하는 것을 말한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모든 장기가 성숙되어 있지 않아 면역력이 약하며, 호흡기, 심혈관, 신경 등 신체 기관에 이상이 생기기 쉽다. 조산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 손꼽히는 김영주 교수는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간행위원장, 조산연구회 위원장 및 대한산부인과학회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고위험 임신 중 조산의 다양한 치료 및 예방에 힘써 왔다. 또한, 김영주 교수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분야 중점 연구 과제인 '조산과 태아 손상 조기 진단용 바이오마커 및 맞춤형 조산 방지 약물 치료법'이라는 과제를 연구하는 등 활발한 국민 건강 증진 활동과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생리학 이지희 교수, 제 69회 대한생리학회 유당 학술상수상

생리학 이지희 교수(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장/MRC 센터장)가 2017년 11월 4일 열린 제 69회 대한생리학회에서 유당 학술상을 수상했다. 대한생리학회 정회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써,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로, 단편적 업적보다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성과로 탁월한 연구 업적이 있는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이지희 교수는 지난 2010년 9월 부터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이 지정한 조직손상방어연구센터(MRC)를 이끌어 왔는데, 내인성 염증 종결 및 조직손상 복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체 방어시스템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확립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 논문으로 호흡기 시스템 분야 최우수 저널인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European Respiratory Journal', 그 밖의 세계적인 학술지 'Science Signaling', 'Mucosal Immunology'와 'Cell Death and Disease' 등에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수상식 날에 'Apoptotic cell clearance: therapeutic potential from inflammation to cancer metastasis' 제목으로 수상강연을 하였다.

생리학 최윤희 교수, '제69회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 신진생리학자상 수상



생리학 최윤희 교수가 11월 2일-4일에 개최된 '제 69회 대한생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신진생리학자상을 수상했다. 신진생리학자상은 만 45세 미만의 전국 생리학자를 대상으로 전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심사하여 우수한 연구업적과 연구수행능력을 보이는 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최윤희 교수는 뇌염증 및 뇌미세환경에서 신경교세포의 기능규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으며, 최근 3년간 20편의 SCI(E) 논문을 주저자 및 공동저자로 발표한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동창회 소식



이대의사회동창회,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이대의사회동창회는 지난날 27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청소년쉼터 주간행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대의사회동창회는 2011년부터 6년간 일반진료, 독감예방접종, 자궁경부암검진 및 예방접종 등 의료지원을 통하여 가출, 저소득가정,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쉼터를 이용·입소한 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무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대의사회동창회를 우수 기관으로 인정해 표창했다.

행사알림

1. 이화해외의료봉사 (1)

- 기간: 2018. 1. 2. (화) ~ 2018. 1. 8. (월)
- 장소: 캄보디아

2. 이화해외의료봉사 (2)

- 기간: 2018. 1. 14. (일) ~ 2018. 1. 19. (금)
- 장소: 베트남

3. 의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 일시: 2018. 2. 9. (금), 11:00 (예정)
- 장소: 의학관 A동 김옥길홀

동창 행사

1. 2017년 송년회 및 학술심포지엄

- 일정: 12. 2(토) 16:00
- 장소: 신촌 이대 ECC관 B1 이삼봉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변성완(정보관리부장)

편집위원 김윤진(정보관리부 차장), 김범산(정보관리부 차장), 박주영

학생기자단 고혜진, 박조은, 방윤지, 최은영

디자인·인쇄 정디자인



※ 소식지에 게재할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mail: mediewha@ewha.ac.kr



2018년 완공예정인 마곡지구 새병원(좌) 및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우)